

## 학술지 『정신문화연구』 30년의 회고와 전망

박성진\*

- |                          |         |
|--------------------------|---------|
| I. 들어가는 말                | V. 나가면서 |
| II. 연구원 원보(院報)에서 전문 학술지로 | <참고문헌>  |
| III. 한국학, 어떤 내용을 담아왔는가?  | <국문요약>  |
| IV. 2000년대 한국학과 『정신문화연구』 |         |

### I. 들어가는 말

『정신문화연구』(영문명: *Korean Studies Quarterly*)는 2008년 3월 제31권 1호(통권 110호)를 발간하면서 창간 3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1978년 10월 14일 『정신문화연구』의 전신(前身)인 『精神文化』 1호를 발간한 이래 통권 110호(31권 1호)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정신문화연구』 110호까지의 발간은 한국학중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sup>1)</sup> 뿐만 아니라 학계에도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연구원, 『정신문화연구』 편집 담당(ksq@ak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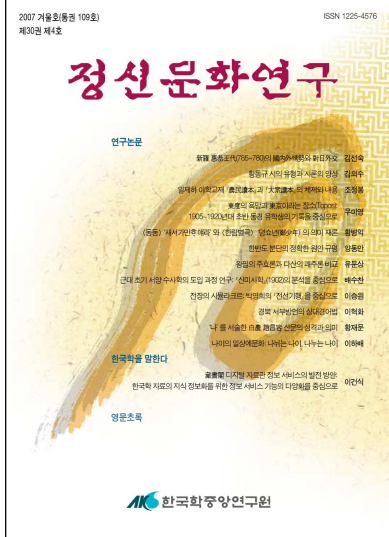
1) 1978년에 개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설립 당시 명칭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었으며, 2005년 1월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따라 명칭을 개칭하였다. 연구원의 명칭과 관련하여 연구원 설립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박종홍 교육문화특별보좌관은 애초에 연구원의 명칭을 ‘국립정신연구원’(國立精神研究院)으로 할 것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년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5쪽. 연구원의 영문 명칭은 개원 이후에 확정되었는데, 애초 ‘정신 문화’를 그대로 영역해 ‘spiritual culture’라는 안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한국학 전공 국내의 연구자들에게 연구원의 성격을 보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으로 결정되었다. 이상주, 「인문·사회과학의 위기와 한국학의 전망」, 『정신문화연구』

연구원 설립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로 개원(開院)을 축하했었다.

정신문화연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학문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단시일에 큰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연구원의 창설은 앞으로 이러한 역사적인 공동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본 연구원을 국학연구의 총본산이자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한국학 연구기관으로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2)

박정희 대통령의 말처럼 정신문화연구를 포함한 한국학 분야는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야로, 연구원에서 간행한 학술지가 발간 30년을 맞이했다는 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설립 당시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해왔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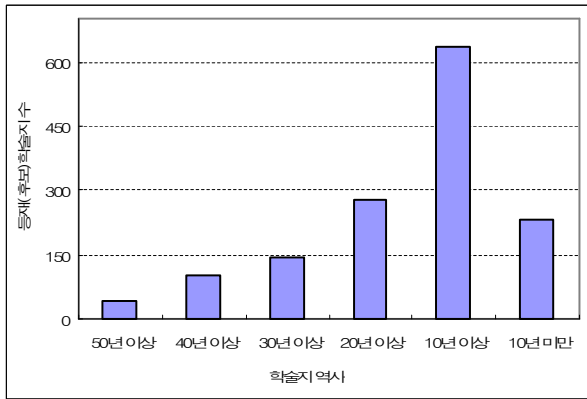
<그림 1> 『정신문화연구』 109호 표지



또한 『정신문화연구』 30년이 국내 학계에 주는 의미도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전문)학술지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에서 선정한 등재(후보)학술지 목록에 따르면, 2007년 12월 현재 국내에는 등재지 902종, 등재후보지 533종 등 총 1,435종의 학술지가 발간되고 있다.3) 등재(후보)학술지 목록을

- 1) 『정신문화연구』 24권 3호(2001), 301~302쪽.
- 2) 박정희, 「개원 치사」, 『정신문화』, 1권 1호(1978), 2~3쪽.
- 3) 2008년 3월 현재 학진 선정 등재(후보)학술지 총수는 1,568종에 달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7년 12월 현재의 기준으로 논문을 작성했다. 학진 등재(후보)학술지 외에 학회 및 기관 등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실제 숫자는 실제로 2~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총수는 6,805종에 달하고 있지만, 일간지(138종), 주간지(2,395종), 월간지(2,478종)를 제외하면 (전문)학술지의 수는 여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2006년 4월 4일자.

<그림 2> 등재(후보)학술지 연혁(2007년 12월 기준)



통해 국내 학술지들의 연혁을 비교해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학술지 창간년도가 1958년 이전으로 역사가 50년 이상 된 학술지는 총 43종이며, 1968년 이전의 40년 이상 학술지는 103종, 1978년 이전의 30년 이상 학술지는 144종, 1988년

이전의 20년 이상 학술지는 277종, 1998년 이전의 10년 이상의 학술지는 636종, 1998년 이후 창간 학술지는 232종이다.<sup>4)</sup> 이들 학술지 중 인문사회분야에서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학술지는 148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정신문화연구』가 간행 30년을 맞았다는 것은 한국학 분야에서 『정신문화연구』가 학계의 중견 위치를 넘어 선도적 학술지로 성장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30년간 『정신문화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과 통계를 통해 『정신문화연구』가 이루어온 학문적 성과를 개괄해 보고, 앞으로 『정신문화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구원 원보(院報)에서 전문 학술지로

『정신문화연구』는 창간 당시 연구원 소식을 전하는 연구원 원보(院報)에서 출발하였다. 이선근 초대 원장은 창간 당시 『정신문화』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우리는 이 소책자를 통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가야 할 독창적인 길에 관해

4) 학진 선정 등재(후보)학술지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학술지는 한글학회에서 간행하는 『한글』(1932)이다.

서도 부단한 탐구를 거듭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원보는 그러한 의사 교류의 매개체로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sup>5)</sup>

당시의 이러한 성격에 걸맞게 『정신문화』 창간호에는 총 32쪽 중 연구원의 실별 소식 등이 15쪽에 걸쳐 게재되어 소식지의 성격을 드러냈고 연구원 개원과 관련한 시론적 성격의 글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격은 『정신문화』 10호(1981. 6)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80년 10월 2대 원장으로 취임한 고병익 원장은 1981년에 들어 소식지 형태의 『정신문화』를 학술지 형태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1981년 11월 발간을 목표로 1981년 7월 달에 『정신문화』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당시의 편집위원회에는 원내편집위원으로 황성모, 조동일, 김한식, 정기돈 등 4인이 위촉되었고, 원외편집위원으로는 한전숙(서울대), 권영빈(중앙일보) 2인이 위촉되었다. 당시 편집위원회는 『정신문화』를 유가지로 변경하는 등 전면적인 재창간 사업을 맡게 되었다. 편집위원회는 『정신문화』의 향후 성격과 관련하여 ① 종합교양지형, ② 시사성을 띠는 형, ③ 한국학 주도형, ④ 순수학술지형<sup>6)</sup>의 4가지 안을 제시하였고, 이들 안들 중 1981년 8월 21일 열린 편집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향후 『정신문화』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한국학 전반을 다루는 순수 전문지
- 학분분야의 총괄같은 넓은 의미의 정신문화를 다루는 책
- 쉬우면서도 Originality가 있는 전문지<sup>7)</sup>

편집위원회의 결정과 1981년 9월 17일 출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신문화』는 호당 5,000부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권당 가격은 1,500원으로 책정되었다.<sup>8)</sup> 이러

5) 이선근, 「창간사」, 『정신문화』, 1권 1호(1978), 1쪽.  
 6) 「본원 원보(정신문화)의 유가지 변경 발간에 따른 소견서」(1981. 7. 22).  
 7) 「편집위원회 결과보고」(1981. 8. 21).  
 8) 『精神文化』의 당초 총 발행부수 5,000부 가운데 유가판매 4,000부, 무상배포 1,000부를 목표로 계획했다. 권당 가격도 당초에는 1,5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당시 시중 판매 학술지들의 가격이 『어문연구』(3,000원), 『한국학보』(2,500원), 『현상학과 인식』(2,500원) 등인 점과 연구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최종가격은 2,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정신문화 11호」 발간 및 배포에 따른 여러 문

한 과정을 거쳐 1981년 12월 10일 『정신문화』 11호(1981년 겨울호)가 발간되었다. 당시 고병익 원장은 『정신문화』의 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지금까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精神文化』를 1년에 네차례 10호를 간행한 바 있으나, 이것은 연구원의 내부용 간행물로 그 내용과 배포 범위는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이제 그 내용과 배포 범위를 훨씬 확장하여 국민 모두의 지적 교양서로 삼고자 계간 『정신문화』를 내기로 한다. 이미 간행되고 있는 교양 또는 전문 잡지가 적지 않지만 『정신문화』를 발간하는 취지는 전통 문화와 현대 사회 과학을 연결시켜 오늘의 문제를 발견하고 생각하며 상업성을 떠나서 꾸준한 자세로 탐구하고 주장하는 잡지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9)

<그림 3> 《동아일보》 광고

전통문화와 현대사회를 이어주는  
계간 교양지 전국 유통서점에서 판매중

# 정신문화 81년 겨울호

특집 : 한국문화의 갈등과 진로

전통문화와 의태문화	.....	어석기
발전론적 場의 논리	.....	박준식
세계정신과 민족정신	.....	황성모
씨족의식과 시민의식	.....	민석홍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갈등과 통합	.....	진명규
말과 글의 사회구조 : 국어타령	.....	조동일
학문에 있어서의 비판정신	.....	김대환
전통음악의 현대화 논의	.....	정범욱
풍수설考	.....	허문경
고대 중국인의 시간관	.....	이은봉
한국인의 색채의식	.....	정시화
명인양묘와 우리의 典籍	.....	성택경
레비-스트로스와 韓國	.....	이광규

●최근의 한국학 화계 동향 ●서평과 고전해제  
총발행부수 723-37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값 2,000원**

그러나 『정신문화』 간행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12월 10일 『정신문화』 11호의 발간 이후 편집위원회는 기존에 작성된 편집안이 발간과정에서 전면 재조정된데 간접적으로 항의하기도 하였다.10) 『정신문화』 11호의 간행과 더불어 유가 판매부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다. 1981년 12월경에 언론사에 『정신문화』의 재창간과 관련된 기사들이 게재되었고,11) 일간신문에 광고도 신게 되었다.12) 당시 신문기사 및 광고의 효과는 판매 부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제점과 제작진행 상황 보고(1981. 11. 14).

- 9) 고병익, 「계간 『정신문화』를 내면서」, 『정신문화』, 11호(1981. 12. 10), 2쪽.
- 10) 항의의 표시로 편집위원회에서는 향후 『정신문화』에서 편집위원 명단을 뺄 것을 결정했다. 그 결과 편집위원 명단은 11호에 게재된 이후 24호(1985년 봄호)까지 게재되지 못했다. 「편집위원 간담회 내용」(1981. 12. 22).
- 11) 「季刊誌 『精神文化』 精神文化研서 발간」, 《중앙일보》 1981년 12월 23일자 6면.
- 12) 《동아일보》 1981년 12월 28일자 2면 우측 하단. 당시 연구원에서 2개 일간신문에 광고료 및 도안비로 지불한 금액은 총 1,670,000원이었다. 「정신문화연구예산집행현황」(1982. 8. 10).

다. 당시 총 5,000부를 발행했는데, 유가 판매로 총 1,235부를 판매해 1,482,000원의 수익금을 거두었다.<sup>13)</sup> 그러나 11호 발간 이후 광고 중단 및 판매 촉진을 위한 대책 부진으로 인해 판매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12호 757부, 13호 262부, 14호 313부 등으로 판매부수가 하락하였고,<sup>14)</sup> 그 결과 발행부수도 점차 감소하여, 17호에는 호당 3,000부, 18호~27호까지는 호당 2,000부, 28호부터는 호당 1,500부를 발행하였고,<sup>15)</sup> 2006년 현재 호당 1,000부씩 연간 4,000부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총 발행부수는 214,180부에 달한다. 이는 발간부수로만 본다면 2007년 12월까지 연구원 발간 도서 중 약 200만권이 발간된 『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1986년 4월부터 1988년 9월까지 발행된 『국민정신』 860,000부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정신문화연구』가 지난 30년간 본원의 대표적인 학술지였음을 보여준다. 정신문화연구의 인쇄판형은 3차례의 변화를 거쳤다. 1호(1978)부터 10호(1981)까지는 4·6배판으로, 11호(1981)부터 16호(1983)까지는 신국판으로, 17호(1983)부터 74호(1999)까지는 크라운판으로, 75호(1999)부터 현재까지는 변형크라운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신문화』는 1983년 4월 발행된 16호를 끝으로 명칭이 『정신문화연구』로 변경되었다. 명칭의 변화는 한국학 학술지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한국학 연구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명칭변경과 더불어 『정신문화연구』의 편집부서 및 인쇄처도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편집부서의 경우 1호(1978)부터 15호(1982)까지는 연찬부편집실이 담당하였고, 16호(1983)는 국민정신교육부에서, 17호(1983)부터 19호(1983)까지는 교육자료개발실에서, 20호(1984)부터 73호(1998)는 기획조정실에서, 74호(1999)부터 현재까지는 연구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인쇄처의 경우에서 1호(1978)부터 12호(1982)까지는 삼화인쇄(주)에서, 13호(1982)부터 74호(1999)는 신흥인쇄(주)에서, 75호(1999)부터 현재까지는 오름시스템(주)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이러한 변화는 연구원 자체의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양질의 인쇄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편집위원회 및 본 연구원의 노력이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3) 「정신문화연구예산집행현황」(1982. 8. 10).

14) 「계간 “정신문화”지 방향 정립에 대한 회의자료」(1983. 2. 11).

15) 「계간지 “정신문화연구” 개선방안」(1986. 5. 20).

### III. 한국학, 어떤 내용을 담아왔는가?

『정신문화연구』 집필요강에 따르면, “『정신문화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한국학**에 관련된 것으로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sup>16)</sup>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된 “한국학”이란 무엇인가? 또한 “국학”(國學)이라는 용어는 무엇인가? 본원의 11대 원장을 역임했던 이상주 전(前) 원장은 “국학은 文·史·철의 인문학 중심으로 전개되고 한국학은 ‘한국에 관한 모든 연구’를 일컫는 것으로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학문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학은 민족의 전통 문화를 내부의 시각으로 연구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 작업인데 반해 한국학은 외국인 학자들이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외부의 시각에서 연구하여 타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일종의 지역 연구라고 이해하고 있다.<sup>17)</sup> 그러나 이러한 국학과 한국학의 개념 구분은 1960년대 이후 거의 사라졌고, 적어도 명칭에 관한한 한국학으로 거의 수렴을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가속도를 붙인 것은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설립이었다.<sup>18)</sup> 그 결과 한국학이라는 이름으로 설정된 학문적 영역은 문학, 어학, 철학, 사학, 민속학, 종교학, 예술,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법학, 경제학 등 인문사회예술 전분야를 지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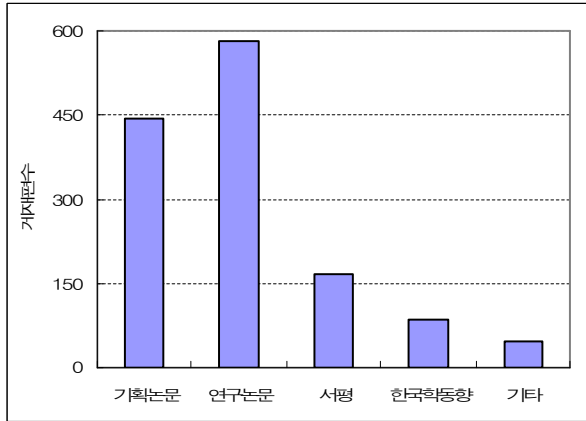
이는 지난 30년간 『정신문화연구』에 게재된 글들의 분류한 <그림 4>에서도 엿볼 수 있다. 현재 『정신문화연구』에는 기획 논문, 연구 논문, 쟁점과 토론, 한국학을 말한다, 해외한국학 동향, 서평 등 6개 항목에 걸쳐 논문 및 글들을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지난 30년간 『정신문화연구』에 게재된 논문 및 글들을 분석해 보면, 총 1,325편의 논문 및 글들이 게재되었다. 이들 중 기획(특집)논문은 444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그 비중은 33.5%이고, 연구논문(학술발표문, 쟁점과 토론 포함)은 총 582편으로, 43.9%, 서평은 167편으로 12.6%, 한국학동향(학술대회·세미나 참관기, 좌담회 등 포함)이 86편으로 6.5%를, 기타(시론, 권두언, 수필, 논

16) 『정신문화연구』 원고 제출 및 집필요강」 2조.

17) 이상주, 앞의 논문, 303쪽.

18) 전상인, 「한국학과 사회과학의 대화: 역사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한국학연구소(편),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푸른역사, 2005), 70, 194쪽. 특히 200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의 명칭 변경은 이러한 명칭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림 4> 1978~2007 『정신문화연구』 게재 글 분류



평 등 포함)가 46편으로 3.5%를 차지했다.

여기에 『정신문화연구』 편집진의 고민이 있다. 한국학이 한국에 관한 인문 사회예술 등 전분야의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신문화연구』에는 다른 특화된 학술지들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이 투고 되고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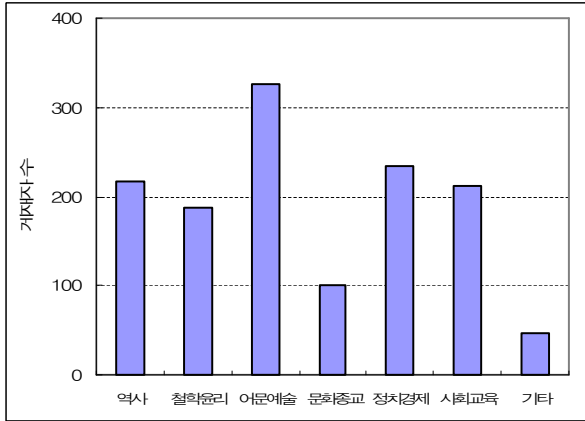
편집위원들만으로는 전분야를 심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9)</sup> 그럼에도 지난 30년간 『정신문화연구』 편집위원회는 한국학 전문 학술지로서 『정신문화연구』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정신문화연구』 편집위원회는 81년 최초로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내편집위원 71인(중복 제외)과 원외편집위원 11인(중복 제외), 총 82인의 학계의 중진인사들로 구성되어 왔다. 편집위원들의 전공은 역사학, 국문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미술학 등 한국학 전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들은 기획(특집)논문의 주제 및 필자 선정, 논문 평가자의 선정, 편집 내용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정신문화연구』에 게재된 총 1,325편의 논문 및 글들을 투고자 전공별로 분류해 보면 <그림 5>와 같다. 1,325편 가운데, 역사 분야 전공자의 수는 217명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16.4%이고, 철학윤리 전공자는 187명으로 14.1%, 어문예술 전공자는 327명으로 24.7%, 문화종교 전공자는 100명으로 8%, 정치경제 전공자는 235명으로 17.7%, 사회교육 전공자는 213명으로 16.1%, 기타 분야 전공자는 46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30년간 『정신문화연구』에는 어문에

19) 이러한 문제는 『정신문화연구』를 학진 학술지로 등록할 때부터 시작된다. 학술지 연구분야 분류에는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 예술체육, 복합학 등 8개 분야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데, 『정신문화연구』는 인문, 사회, 예술체육 등 3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신문화연구』는 인문 분야에 등록되어 있다.



<그림 5> 1978~2007 『정신문화연구』 전공별 게재자



술 분야의 논문 및 글들이 가장 많이 게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정신문화연구』와 관련된 또다른 통계는 지역별 투고자 분류 통계이다. 『정신문화연구』에 게재된 1,325편 중 투고자 소속 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속한 투고자가 1,09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상 지역으로 61명, 그 다음으로는 충청, 외국, 전라, 강원, 제주 지역 순이다. 수도권 지역에 가장 많은 투고자가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기관 학술지로서 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에게 논문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광장’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1,325편의 글들 가운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의 글이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그 다음은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자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지역에 학문적 집중도가 큰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박사학위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200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42,356명의 박사학위취득자 중 수도권 지역의 박사학위취득자는 80,623명의 그 비중은 56.6%에 달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수도권 집중도를 보여준다.<sup>21)</sup>

20) 이러한 결과는 1978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분야별 도서 분류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전공별로 총 725권의 책이 연구원에서 발간되었는데, 어문예술 전공이 221책을 발간하여, 전공별로는 가장 많은 도서를 출판하였다. 특히 어문분야는 본원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한국구비문학대계사업>, <한국방언자료사업> 등 어문 분야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표> 한국학중앙연구원 전공별 간행도서(1978~2005)

분야별	역사	철학윤리	어문예술	문화종교	정치경제	사회교육
도서수	122	113	221	30	114	125
비중	17%	16%	30%	4%	16%	17%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논저목록·2005』(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참조.

21) 『행정구역(시도)/성/혼인상태/연령/교육정도별 인구(15세 이상)』, 통계청 홈페이지(2007. 1. 5 검색).

<표 1> 1978~2007 『정신문화연구』 게재자 지역별 분류

지역	수도권	강원	경상	전라	제주	충청	외국
게재자 수	1,091	35	61	40	4	53	41
비중	82.4%	2.6%	4.6%	3.0%	0.3%	4.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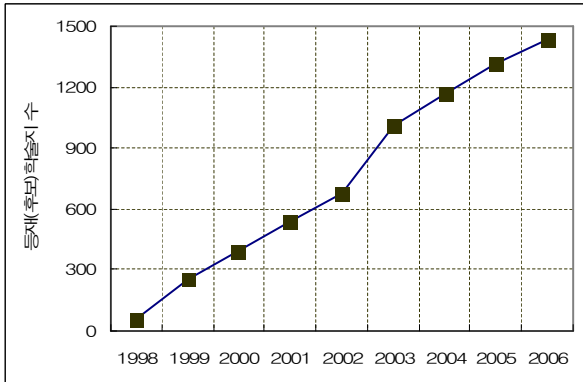
\* 2인 이상 공동저술한 논문의 경우 주저자 1인의 소속 기관의 지역을 따름

#### IV. 2000년대 한국학과 『정신문화연구』

199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세계화의 물결과 신자유주적 시장 경쟁 논리는 국내 학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대외적으로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대두, 세계화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간의 경쟁 심화, 지방분권화, 대학교육의 수요 변화,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등과 대내적으로 교수계약제와 연봉제로 대표되는 경쟁 논리의 확산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대응이 요구되었다. 특히 연구자들의 연구실적이 연구자를 평가하는 기본 평가지표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1998년부터 시행된 학진의 「국내학술지평가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바로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권의 등장에 따른 향후

학문·지식정책의 변화와 지식사회 재편을 예고한 것이었기 때문이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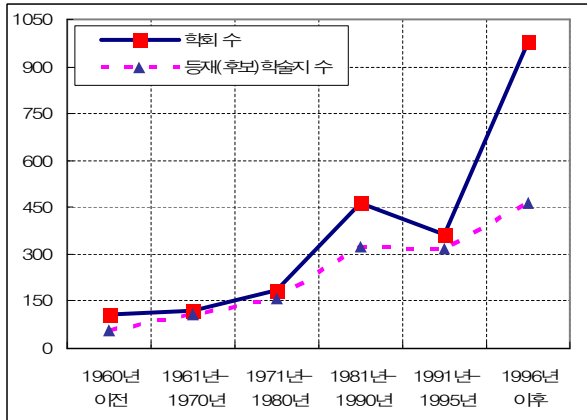
<그림 6> 1998~2006 등재(후보)학술지 누적 추이



학진의 2001년 1월 「국내 학술지평가 신청안내서」에 따르면 이 사업의 배경은 “국내 학문의 수준과 역량을 향상”과 “학술연구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

22) 김원, 「학문정책과 학문후속세대: 학술진흥재단을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학술진흥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정책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집』(중앙대, 2007. 11. 19), 2~3쪽.

<그림 7> 학회 및 등재(후보)학술지 창간년 비교



치 마련”이었고 이 사업의 목적은 “국내 학술연구의 역량 증진”과 “국내 학술지의 국제적인 수준으로의 성장 유도” 그리고 “학술연구업적 평가의 객관적 자료 제공”이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 학계에서 학진이 주관하는 학술지 평가 사업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

되었다. 이점은 <그림 6>에서 보듯이 1998년 이후 학진 등재(후보)지의 누적 추이에서도 알 수 있다. 1998년에 시작된 「국내학술지평가사업」에 따라, 등재(후보)학술지 수는 1998년 57종을 시작으로, 1999년 255종, 2000년 390종, 2001년 545종, 2002년 674종, 2003년에 1,007종, 2004년에 1,161종, 2005년 1,311종, 2006년 1,435종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그림 7>에 나타난 학회 및 등재(후보)학술지의 창간년 비교이다. 학계에 등록되어 있는 총 2,222개의 학회 가운데 1960년 이전에 설립된 학회 수는 111개, 1961~70년에는 122개, 1971~80년에는 184개, 1981~90년에는 462개, 1991년~95년에는 364개 1996년 이후 설립된 학회 수는 979개이다. 1996년 이후 국내에서 학계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학술지도 이와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60년 이전에 55종, 1961~70년 107종, 1971~80년 162종, 1981~90년에 326종, 1991~95년에 319종, 1996년 이후 464종이 창간되었다. 이 지표에서 보듯 1990년대 들어 학회 설립과 등재(후보)학술지 창간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원인은 무엇보다 학문의 세분화·전문화에 따른 학계 내부의 대응이기도 했지만, 199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경쟁의 논리에 따라 연구실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sup>23)</sup> 이러한 학진의 등재(후보)학술

23) 1990년대 들어 학술지의 급속한 창간은 한편으로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자들이 연구실적을 양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따라 논문의 중복투고

지 정책은 그간 학회 및 기관들의 학술지 발간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그 장점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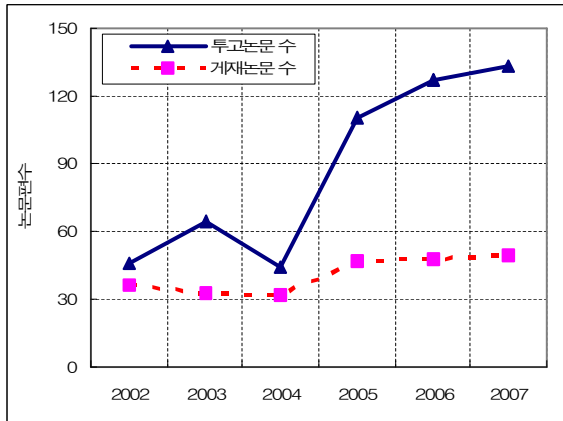
『정신문화연구』도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1년에 「국내학술지평가사업」에 평가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01년 하반기에 학진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이후 2003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를 받아 2004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2003년의 제1차 계속평가에서는 총점 84점을 받아 “후보1차 Pass”의 결과를 얻었는데, 학술지 체계평가 영역에서 보완을 요구받았고, 2004년의 제2차 계속평가에서는 총점 83점을 받았는데, 학술지 내용평가 영역에서 보완을 요청받았다. 평가 과정들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정신문화연구』 편집위원회는 제도적 차원의 미비점들이 보완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6차례 규정을 개정하였다.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편집 규정, 논문심사 규정, 연구윤리 규정 등이었는데, 이 개정을 통해 편집 체제가 일신되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중복투고 및 표절 등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대응도 본격화 되었다. 그 결과 2007년에 실시된 학술지 계속평가에서는 총점 94점을 획득해 “등재 유지” 판정을 받아 그간의 보완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학진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이후 『정신문화연구』는 양적·질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림 8>의 연도별 투고논문 수에서 보듯이 2002년에는 46편, 2003년 64편, 2004년 44편, 2005년 110편, 2006년 127편, 2007년 133편 등으로 연평균 87편의 논문이 투고되었다. 2004~5년에 투고논문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2006~7년에도 그 추세가 증대되었는데, 그 원인은 『정신문화연구』가 2004년에 학진 등재지로 선정되었다는 점과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힘입어 『정신문화연구』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기간동안 게재된 논문수는 2002년 36편, 2003년 33편, 2004년 32편, 2005년 47편, 2006년 48편, 2009년 49편으로 논문게재율은 2002년 78.3%, 2003년 51.6%, 2004년 72.7%, 2005년 42.7%, 2006년 37.8%, 2007년 36.8%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정신문화연구』가 학술지로서 국내적 위상도 상당 부분 갖추었

---

및 표절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2000년 이후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는데, 여기에는 1990년대의 무분별한 학술지 창간이 한 원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

<그림 8> 2002~2006 정신문화연구 투고논문·게재논문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외국  
의 최상위 학술지들의 논문  
게재율이 20~30%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sup>24)</sup>과 최근 3년  
간 『정신문화연구』의 연평  
균 논문게재율이 39.1%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정신문화연구』가 최고 수  
준의 학술지가 되기 위해서  
는 가야할 길이 여전히 많  
이 남아있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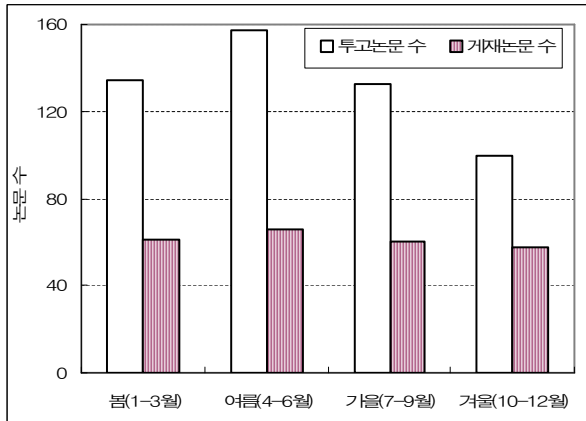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정신문화연구』 투고논문과 게재논문을 분기별로 분석해보면 <그림 9>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봄호(1~3월)에는 총 134편(25.6%)의 논문이 투고되어 6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여름호(4~6월)에는 157편(29.8%)에 투고되어, 66편이 게재되었으며, 가을호(7~9월)에는 133편(25.4%) 투고에, 60편 게재, 겨울호(10~12월)에는 100편(19.1%)이 투고되어 58편이 게재되었다. 『정신문화연구』에는 분기별로 여름호에 가장 많은 논문이 투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 이후 국내 학술지들은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되어 왔으며 90년대 후반 학진의 「국내학술평가사업」을 통하여 질적으로도 일정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진이라는 정부 기관 주도

24) 2006년 1월 국내학술지로는 3번째로 국제학술정보기관인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사의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저널에 등재된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발간)의 경우 3년간 평균 논문게재율이 38%에 지나지 않는다. 「보도자료」, <연합뉴스>, 2006년 1월 14일. 국내등재학술지의 경우, 『정신문화연구』와 같은 시기에 등재지가 된 『동양학』(단국대 동양학연구소)과 『비교민속학』(비교민속학회)의 경우 2006년 평균 게재율은 각각 65.4%, 65.9%였다. 『『東洋學』 제39집 심사 경위』, 『동양학』, 39집(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6. 2), 229쪽; 『『東洋學』 제40집 심사 경위』, 『동양학』, 40집(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6. 8), 204쪽; 『『비교민속학』 제31집 심사경위』, 『비교민속학』, 31집(비교민속학회, 2006. 2), 521쪽; 『『비교민속학』 제32집 심사경위』, 『비교민속학』, 32집(비교민속학회, 2006. 8), 561쪽.

25) 물론 논문게재율이 학술지의 ‘질’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좋은’ 학술지는 이러한 기준을 포함한 좀더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 기준을 정하는 일이야말로 국내 학계의 ‘숙제’일 수밖에 없다.

<그림 9> 2002~2007 분기별 투고논문·게재논문



의 학술지 평가가 부작용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sup>26)</sup> 특히 학술지의 특성을 무시한 학진의 계량적 평가는 학술지 평가를 대비한 학회 차원의 탈락을 조작이나, 유사 학술지의 난립, 등재(후보)학술지 외의 특수 학술지 및 잡지의 폐간 등 학계의 자유로운 학문적

소통을 막아 학술지간의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켰으며, 인문지식을 대중으로부터 소외시켜 “아무도 읽지 않”는 학술지가 무분별하게 창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27)</sup> 특히 학진 주도로 2007년 11월 30일에 개최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정보시스템 시연회에서 향후 추진 사업으로 “논문 투고—심사—출판에 이르는 학회 운영 업무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JAMS]의 개발 및 보급”<sup>28)</sup>을 제시했고, 2008년 하반기에 보급하는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정책은 향후 [JAMS]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학회 및 기관은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한 동시에 개별 학회 운영의 특수성 및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진이 연구과제의 선정—심사(표절 문제)—학술지 게재—출판 등의 전과정에 개입하는 이른바 “‘공룡’, ‘제국’, ‘원형감시탑’”<sup>29)</sup>으로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학진은 ‘통합연구인력정보’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약 184,000여명의 연구자 정

26) 이종우, 「학술지 평가를 말한다」, 『안과밖(영미문화연구)』, 15집(2003) 참조.  
 27) 한형조(외),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2001-정책 01(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45-46쪽, 김원, 「학문정책과 학문후속세대: 학술진흥재단을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학술진흥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정책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집』(중앙대, 2007. 11. 19), 3-4쪽, 「학술지 우수족순·수준은 ‘글쎄」, 《동아일보》, 2008년 2월 28일자.  
 28) 지식정보센터,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정보시스템 시연」(2007. 11. 30), 4, 11쪽.  
 29) 이명원, 「시론: 학술지원 시스템이 문제다」, 《경향신문》, 2007년 12월 1일자.

보를 바탕으로 KCI 시스템의 Kor-Factor<sup>30)</sup>를 개발하고, 자기피인용회수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웠으나 오히려 자기피인용회수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술지의 저자들의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과도 집적,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구축 등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학술지 영역에서 학진의 정책은 앞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학회 및 학술지 발간 기관들은 이 시점에서 제2의 도약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1990년대의 학술지 팽창기와 2000년 이후 학진의 학술지 평가 사업을 통해 국내 학술지들이 제1의 도약과 성장을 이루었다면 그 이후의 책임은 무엇보다 각 학회 및 기관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 현재 국내 발간 학술지들의 상당수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학진의 「국내학술지평가사업」의 양적 팽창기를 넘어서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 가운데 영문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 및 기관들을 중심으로 미국 ISI사에서 주관하는 A&HCI나 SSCI에 등재를 신청하는 학술지가 증가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종이책 형태가 아닌 인터넷이나 e-book 형태로 발간하는 추세도 학술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제2의 도약을 이루려는 일련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글 발행 학술지의 경우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 V. 나가면서

이상에서 지난 30년간 『정신문화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통계들을 통해 지난 30년을 회고해 보았다. 지난 30년간 『정신문화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관지 성격에서 출발해 한국학 전문 학술지로서 현재의 위상을 확보하기까지 많

30) Kor-Factor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핵심은 동명이인이 많은 현실에서 자기피인용회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이다. 지식정보센터,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정보시스템 시연」(2007. 11. 30), 7쪽.

$$\text{Kor-Factor} = \frac{[\text{피인용횟수}-\text{자기피인용회수}/2] \text{의 평균}}{[\text{피인용횟수}-\text{자기피인용회수}/2] \text{의 표준편차}} + \log[\text{총논문수}]$$

은 변화를 겪어왔다. 내부적으로는 『정신문화연구』를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많은 편집위원들과 편집담당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대외적으로 한국학 관련 분야의 논문들을 투고해 온 연구자들이 『정신문화연구』를 현재까지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2007년 현재 『정신문화연구』는 논문투고 수 및 논문게재율 등의 계량적 수치를 통해 볼 때, 국내 학술지 가운데 상위 수준에 위치해 있다고 자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가 향후 30년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부단한 노력만이 『정신문화연구』를 한국학 학술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신문화연구』 나아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학술지 관련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학 소통의 장으로서 『정신문화연구』가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 학계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인문학의 위기”이다. 실례로 교보문고의 2006년 집계에 따르면 인문과학 도서는 올 한해 동안 종합 베스트 50위권에 단 한권도 오르지 못했고,<sup>31)</sup> 대학별로 인문대학의 철학·어문·역사 학과들이 폐과 조치되거나 통폐합되었다. 2006년 9월에는 학진에서 “인문주간”을 선포했으며, 전국 80개 인문대학장단이 인문학의 위기를 환기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와는 달리 한편에서는 현재 인문학의 위기가 대학의 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수유+너머’의 고병권은 “‘위기론’의 실체는 교수의 위기고 아카데미 권력 구조의 위기이지 학문의 위기는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인문학 “소통”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대중 문화 영역의 한류 열풍에서 보듯이 인문학적 콘텐츠의 쓰임새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해졌고, 인문학 콘텐츠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인문학이 위기가 아니라 정반대로 최고의 기회를 맞은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sup>32)</sup>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신문화연구』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소통 부재의 한국학에 소통의 기회를 넓혀주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제까지 국내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들이 양적 팽창을 통해 학문적 소통의 장이 넓어진 것 또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단일 학회 차원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고, 학제간 연구에 대한 폐쇄적 태도를 견지

31) 《한겨레신문》, 2007년 1월 1일자.

32) 《한겨레신문》, 2006년 11월 10일자.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sup>33)</sup> 이러한 점에서 지난 30년간 한국학 전반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역사, 철학윤리, 어문예술, 문화종교, 정치경제, 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물들을 게재해 왔던 『정신문화연구』의 장점은 한국학 연구 분야에서 학제간 소통의 장으로써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방향을 더욱 확대한다면, 현재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방안은 기존의 <기획논문> 및 <한국학을 말한다>, <쟁점과 토론> 등의 코너 활성화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인 변화를 『정신문화연구』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경향신문》; 《경향신문》; 《교수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고병익, 「계간 『정신문화』를 내면서」. 『정신문화』 11호, 1981, 2~3쪽.

김원, 「학문정책과 학문후속세대: 학술진흥재단을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학술진흥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정책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집』. 중앙대, 2007. 11. 19, 1~13쪽.

동양학 편집위원회, 「『東洋學』 제39집 심사 경위」. 『동양학』 39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6, 229쪽.

동양학 편집위원회, 「『東洋學』 제40집 심사 경위」. 『동양학』 40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6), 204쪽.

박정희, 「개원 치사」. 『정신문화』 1호, 1978, 2~3쪽.

비교민속학 편집위원회, 「『비교민속학』 제31집 심사경위」. 『비교민속학』 31집, 비교민속학회, 2006, 521쪽

비교민속학 편집위원회, 「『비교민속학』 제32집 심사경위」. 『비교민속학』 32집, 비교민속학회, 2006, 561쪽.

이상주, 「인문·사회과학의 위기와 한국학의 전망」. 『정신문화연구』 24권 3호, 2001, 301~314쪽.

이선근, 「창간사」. 『정신문화』 1호, 1978, 1쪽.

---

33) 「“다른 학회 가보세요” … 通學問的 시선 인정해야」, 《교수신문》, 2006년 5월 23일자.

이종우, 「학술지 평가를 말한다. 『안과밖(영미문화연구)』 15집, 2003, 308~325쪽.

전상인, 「한국학과 사회과학의 대화: 역사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한국학연구소(편),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푸른역사, 2005.

지식정보센터,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정보시스템 시연. 2007. 11. 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년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논저목록·2005』.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한형조(외),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2001-정책 01,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 국문 요약

학술지 『정신문화연구』가 1978년 10월 14일 제1호를 발간한 이래 2008년 3월 31일 현재 제110호(제31권 1호)를 발간하면서 30주년을 맞게 되었다. 이는 1978년 6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출범과 더불어 1978년 10월 <정신문화>라는 원보(院報)로 출발한 『정신문화연구』가 어느덧 연구원의 대표적인 학술 소통의 장(場)이자 한국학 학계의 중견학술지로서 성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30년간 『정신문화연구』는 총 1,325편에 이르는 한국학 분야의 각종 기획논문, 연구논문, 서평, 등의 글들을 게재해 왔다. 이중 약 34%가 기획논문, 44%가 연구논문, 서평이 13% 기타가 9% 정도를 차지했다. 특히 기획논문의 비중이 34%라는 것은 일반 학술지로서 상당한 수치이며, 이는 『정신문화연구』가 특정 학문 분야 및 주제에 관해 심화연구를 진행해왔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논문게재자의 소속별 지역 분포로는 수도권이 82%로 압도적이어서, 국내 학계의 수도권 집중도를 간접적이거나 보여준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학계에 불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쟁 논리와 이를 반영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사업은 『정신문화연구』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 심사제도 및 체계적 발간 제도의 확립이라는 장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와 더불어 심각한 부작용도 생겼음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날 국내 학술지들은 물론 『정신문화연구』도 학계의 격심한 환경 변화에 제2의 도약을 이룰 계기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 주제어(keyword) : 『정신문화연구』(*Korean Studies Quarterly*), 한국학(Korean Studies), 한국학중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한국학술진흥재단(Korea Research Foundation), 학술지평가사업(Academic Journal Evaluation Programs).